

그때 그 사건을 아시나요?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이 번호에는 양계산물 홍보 및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주 -

동원참치 왜곡광고에 항의

1984년 본회를 비롯한 양돈, 낙농육우협회 등 3개 업체는 5월 20일자 격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매일경제신문사 발행)에 가축의 고기(동물성 단백질)를 먹으면 마치 명만큼 살지 못한다는 내용(약주고 병주는 가축의 고기)을 게재한 동원참치사에 강력한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다.(1984년 11월호)

닭고기, 계란 수입 결사반대 시위, TV 생방송

1988년 2월 9일 본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양계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계란 수입 결사반대', '30만 양계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라', '안보적 차원에서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MBC, KBS TV에서는 시위광경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1988년 3월)

UR 농산물 협상 저지 서명운동 전개

1990년 10월 26일 본회를 비롯한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의 목적은 우루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농업에 불리한 안을 강요하는 미국과 한국 협상대표에 실상을 알려 우리 농민과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1990년 12월호)

닭고기 가격 폭락으로 소비촉진 가두캠페인 전개

1991년 6월 사상 유래없이 폭락한 산지 출하가격으로 인해 본

회 임직원들이 사상 2차례에 걸쳐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다. kg당 최저 4백원대까지 농장 출하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가격은 높게 형성되면서 체화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불황이 장기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두캠페인은 1차 강남터미널 광장, 2차 잠실 신천역 부근에서 어려운 현실을 전단지로 만들어 가두캠페인을 벌였다.(1991년 12월호)

축산물 시장개방 저지대회 및 100만인 반대서명

1992년 6월 11일 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날로 거세지면서 본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 반대 등 시장개방 저지대회에 참석하였다. 한편, 본회를 비롯한 축산물 관련 6개단체는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쇠고기 쿼터량 증대와 SBS물량확대 요구 등을 저지키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본회에서는 당초 5천명을 훨씬 넘긴 1만2천9백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위에 전달하였으며, 제출된 서명지 400만명분은 내외신 기자에 공개하였고 사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공세를 퍼는 대사관에 전달하여 한국축산업자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1992년 12월호)

수입닭고기 저지 운동전개

HPAI 발생으로 인해 태국과 미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된 이후 다시 가열처리 닭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를 비롯한 양계인 및 양계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 '우리닭고기 지키기 운동본부'를 정식 출범시키고 7월 7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육계인 결의 대회를 통해 수입닭고기 반대 서명운동 및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행사 및 시식회를 실시하는 등 육계업 사수를 위해 노력하였다.(2004년 8월호)

시관련 전국양계인 항의집회

본회는 양계관련단체들과 연계하여 지난 2005년 11월 24일 여의도에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가상시나리오를 제작, 전파하여 대 혼란을 초래케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성토 및 업계요구사항, 방송사의 무분별한 과대·과장방송 금지, 정부에 생계대책 요구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2005년 12월호) **양계**